東洋學 第79輯(2020年 4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신왕국 이집트의 누비아 식민화와 신전 도시

곽 민 수*

국문초록

이집트와 누비아 사이에는 선왕조 시대부터 밀접한 상호관계가 형성되었다. 두 지역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양 지역에서의 문화과정에도 중요한 배경으로 역할을 했다. 이집트의 관점에서 누비아는 이집트 사회에서 위신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치품들의 산지였으며, 따라서 이집트는 지속적으로 누비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누비아는 비교적 독립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집트의 경우에도 누비아를 직접 통치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왕국 시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제 2 중간기 동안 일시적으로 잃었던 누비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한 신왕국 이집트는 누비아에 대한 편입을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왕국 시대에 사용되었던 누비아 지역의 이집트 요새들이 점차 '신전 도시'로 그 역할이 변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적 현상은 경제적인 동기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동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배경도 존재한다. 누비아의 편입은 이집트의 우주적 질서, 즉 '마아트'의 영역 내로 누비아가 포섭된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은 경제적 동기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이집트가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이집트, 누비아, 신전도시, 신왕국, 이집트학, 이집트고고학, 마아트

목 차

Ⅰ. 머리말
Ⅱ. 누비아의 지리적 배경
Ⅲ. 이집트-누비아 간 교류의 시작
Ⅳ. 중왕국 이집트의 요새 체계 구축과 '이집트의 지리적 범주'에 대한 인식 변화
Ⅴ. 제 2중간기의 경험
Ⅵ. 신왕국의 누비아 편입 과정과 누비아 신전 도시들
Ⅶ. 결어-누비아 식민화의 동기와 그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 그리고 '신전 도시'라는 개념

* 더럼대학교 고고학과 박사수료 / minsoo.kwack@durham.ac.uk

Ⅰ. 머리말

고대 이집트의 정치체들은 누비아(Nubia)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누비아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관심은 다른 지역들, 예컨대 레반트(Levant)[1] 지역에 대해 이집트가 보였던 관심과 비교할 때에,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이어서, 레반트 지역이 오래도록 이집트의 영향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문화적 독립성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누비아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이집트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신왕국 시대(New Kingdom, 기원전 1550~1069년 경)가 되면 이 현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이집트의 '대 누비아 통치 정책'이 이전 시대와는 달리 직접 통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왕국 시대에 등장한 누비아의 '신전 도시(Temple Town)'[2]는 이와 같은 이집트의 대 누비아 정책 변화 및 누비아의 이집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다. 본 논문은 신왕국 이집트에 의한 누비아의 식민화 과정과 그 가운데 등장한 '신전 도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를 둘러싼 몇 가지 함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누비아의 지리적 배경

그리스의 역사가 스트라본(Strabo, 기원전 64~서기 24년 경)은, 당시까지는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주로 '에디오피아'라고 불렸던 누비아 지역에 대해서 '누비아'라는 지명을 사용한 첫번째 인물이다.[3] 고대 이집트어에서 네부(nbw)는 금을 의하는데, 그가 사용한 누비아라는 지명은 이 단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누비아 지역은 이집트 사회에서 소비되던 다양한 귀금속과 사치품들의 산지였고, 그 가운데서도 금의 산지로 명성이 높았다. 누비아에서 채광되는 금은 이집트의 경제적 기반이자, 이집트가 근동 지역 내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어 '네부'와 '누비아'의 어원적 연관성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누비아 지역을 일반적으로 '활의 땅'이라고 불리는 '타-세티(tA-sti)'나 '남쪽 땅'이라는 뜻의 '타-레시(tA-rsy)'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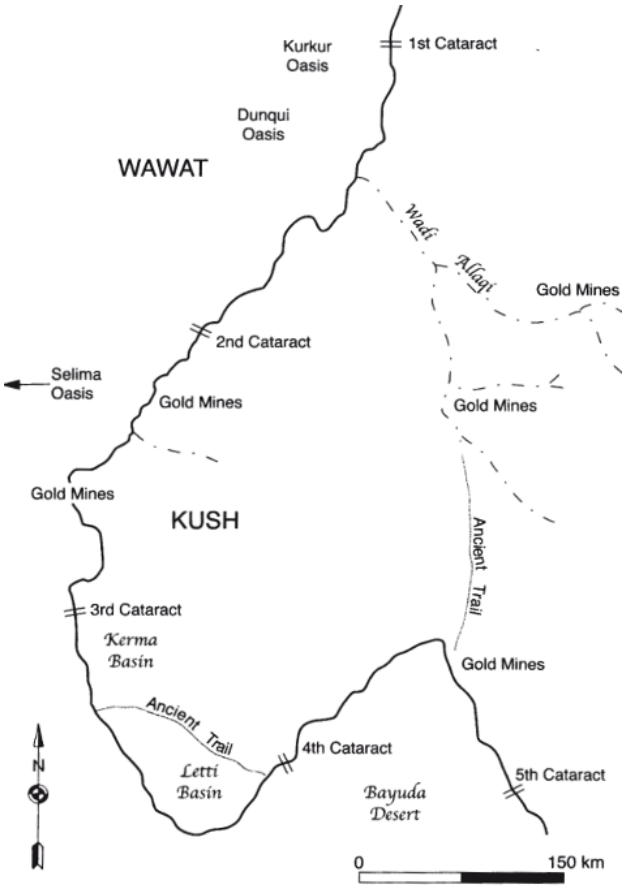
고대 이집트의 공간적인 범주는, 대략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엘레판티네(Elephantine) 섬과 제 1급류(First Cataract)가 있는 오늘날의 아스완(Aswan) 지역까지다. 그리고 이집트의 남쪽 경계인 이 지역 이남에서부터 누비아가 시작된다. 즉 누비아는 제 1급류 남쪽에서부터 나일강의 흐름이 완전 역전되어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제 4급류와 제 5급류 사이 지역까지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누비아의 최남단 지역은 '세상의 끝'으로 인식되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진출하여 흔적을 남긴 최남단도 역시 이 인근이다.

---

1) 현재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 동지중해 지역

2) Kemp, B., "Fortified towns in Nubia", Peter J. Ucko and Ruth Tringham(eds.), *Man, settlement and urbanism. Proceedings of a meeting of the Research Seminar in Archaeology and Related Subjects held at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London University.* Gloucester: Duckbacks, 1972, pp. 651~656.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3) '누비아'라는 지명은 스트라본의 〈지리학*Geographica*〉에 처음 등장한다.



〈그림 1〉 누비아의 주요 지역들

(출처 : Morris, E. F., *The architecture of imperialism: military bases and the evolution of foreign policy in Egypt's New Kingdom,* Leiden: Brill, 2005, p. 26)

중왕국 시대(기원전 2055~1650년 경)에서 신왕국 시대에 이르는 시기 동안 이집트인들에게 누비아는 하누비아(Lower Nubia)와 상누비아(Upper Nubia)로 구분되어서 인식되었다.[4] '와와트(Wawat)'라고 불린 하누비아는 제 1급류와 제 2급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며, '쿠쉬(Kush)'로 불리던 상누비아는 제 3급류 지역에서부터 제 4급류-제 5급류 인근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하누비아 지역은 상이집트에서부터 이어지는, 극단적인 변화는 없는 비교적 단조로운 자연 경관을 갖고 있다. 이 지역에서 나일강은 넓고 평평한 대지를 흐르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항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이 하누비아 지역은 현재에는 1960년대 지어진 아스완 하이댐(Aswan High Dam)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근 지역의 급격한 수위 상승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4) Adams, W. Y., "The First Colonial Empire: Egypt in Nubia, 3200-1200B.C.",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6, 1984, p. 45.

수몰되어 있는 상태이다.[5)]

연속적 경관을 갖고 있는 하누비아 와는 달리 상누비아는 수차례 변화하는 다양한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이집트-수단 국경선 바로 남쪽에 있는 와디 할파(Wadi Halfa)부터 달 급류(Dal Cataract)까지의 지역은 바튼 엘-하자르(Batn el-Hajar)라고 불린다. '바위의 배(Belly of Rock)'라는 뜻의 지명이 보여주듯이 이 지역은 지세가 험준하다. 강 곳곳에 튀어나와 있는 수많은 바위들로 인하여 강이 유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대에는 배를 이용한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6)] 이 자연적 방벽은 남쪽과 북쪽을 단절시켰고, 자연스럽게 북쪽에 위치한 하누비아 지역을 이집트와 더 쉽게 교류할 수 있게 하였을 뿐더러, 하누비아와 상누비아를 가르는 전통적인 경계선 역할도 하였다. 달 급류 이남부터는 아브리-델고 유역(Abri-Delgo Reach)이 시작되는데, 이 지역에서 나일강은 강폭이 보다 넓어진 상태로 모래 평원 지대를 흐르게 된다. 바위로 이루어진 제 3급류(Third Cataract) 지대를 지나게 되면 나일강 주변은 다시 한번 경관이 바뀐다. 이 지역은 제 4급류(Fourth Cataract) 160킬로미터 가량 이어지는 충적 지대로, 주변 도시의 이름을 따서 동골라 유역(Dongola Reach)라고 부른다. 이집트와 비슷한 방식의 농경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배를 이용한 항행도 비교적 쉬운 지역이어서, 상누비아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다.

Ⅲ. 이집트-누비아 간 교류의 시작

이집트와 누비아 사이의 교류는 선왕조 시대(Predynatic Period) 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의 누비아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집단을 학자들은 A-집단(A-Group)이라고 부른다. 대략 기원전 5000~3000년 사이인 이 시기에 이집트에서는 국가 형성 과정이 시작 되었고, 누비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났다. 몇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던 누비아는 쿠스툴(Qustul) 지역을 중심으로, 이집트가 통일되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하나의 정치체로 통일되었다.[7)] 그러나 문헌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세얄라(Seyala)와 쿠스툴의 매장 유적에서 확보된 약간의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대략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8)]

---

5) 댐의 건설로 아스완 시내에서 남쪽으로 500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 전체가 수몰되어 호수화 되었는데, 이 호수를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 이름을 따서 나세르 호수(Lake Nasser)라고 부른다. 그 결과 현재는 하누비아 지역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아스완 시내에서 아스완 하이댐까지의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 뿐이다.

6) Smith, S. T., "Potsand Politics: Ceramics from Askut and Egyptian Colonialism during the Middle through New Kingdoms" C. A. Redmount and C. A. Keller (eds.), *Egyptian Pottery: Proceedings of the 1990 Pottery Symposium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3, p. 75.

7) Williams, B. B, "The Lost Pharaohs of Nubia", *Archaeology* 33, 1980, pp. 1~21; Williams, B. B, *The A-Group Royal Cemetery at Qustul: Cemetery I,* Chicago: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6; Wengrow, D., T*he archaeology of early Egypt : social transformations in North-East Africa, 10,000 to 2650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 167~169.

이집트와 누비아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정치적 통일은 양 지역 간의 상호교류를 가속화시켰다. 곽민수는 선왕조 시대 말기부터 이집트에서 이국적인 물품들을 위신재(pristege goods)로 사용하여 기득권을 강화하고 결국에는 제도화하여 '국가 체제'를 만들어 가는 엘리트 계층의 노력이 있었음을 밝혔다.[9] 실제로 초기왕조 시대(기원전 3100~2686년 경)부터 이집트에서는 누비아산 물품들이 적극적으로 위신재로 사용되었고, 이는 문헌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10]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고왕국 3왕조 시대(기원전 2686~2613년 경)부터 누비아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개발-착취하기 위하여 군사적 원정도 감행되었다. 이 시기 누비아에는 소규모의 이집트 거주지역이 형성되는데, 부헨(Buhen)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11] 이 부헨의 이집트 거주지역은 제 2왕조 시대(기원전 2890~2686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이후에도 이집트식 거주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12] 그러나 제 4~5왕조 시대(기원전 2613~2345년 경) 동안에는 이곳이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실하다.[13] 특히 이 시기의 유적에서는 동시대의 이집트 파라오들의 이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14]

이집트 고왕국에 의한 누비아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하누비아의 나일강 유역에서 누비아 원주민들은 점차 축출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생계의 방식을 바꾸어 경작이 가능한 충적지와 사막의 경계에 형성된 반건조 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15] 결과적으로 고왕국 시기 동안에는 이집트의 누비아 개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치체는 누비아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집트인들은 비교적 쉽게 누비아 지역을 오고 갈 수 있었다. 이후 이집트 고왕국이 붕괴되어 제 1 중간기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누비아에 대한 이집트의 직접적 영향력을 감소되었다. 이 과정을 틈타 유목 생활을 하던 누비아 원주민들이 다시금 나일강 유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16]

---

8) Smith, H. S., "The Princes of Seyala in Lower Nubia in the Predynastic and Protodynastic Periods", C. Berger, G. Clerc and N. Grimal (eds.), *Hommages à Jean Leclant vol. 2.* Cairo: Institut françaisd'archéologie orientale du Caire, 1994, pp. 361~376; Williams, B. B, *op. cit.*, 1986; Williams, B. B., *New Kingdom Remains from Cemeteries R, V, Sand W at Qustul and Cemetery K at Adindan.* Chicago: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2.

9) Kwack, Min-Soo., *Changes in prestige goods and the rise of institutionalised social inequality in the Terminal Predynastic Egypt.* Unpublished University College London MA thesis, 2009.

10) Campagno, M., "Sobre Bienes de Prestigio, Orden y Caos: El Estado Egipcio y sus Periferias Duranteel Período Dinástico Temprano (ca. 3000-2700 a.C.)", A. Daneri Rodrigo and M. Campagno (eds.), *Contactos: Relacionesde Intercambio Entre Egipto y sus Periferias.* Buenos Aires: Universidad de Buenos Aires, 2004, pp. 41~69.

11) Smith, S. T., "A Model for Egyptian Imperialism in Nubia", *GM* 122, 1991, pp. 77~102.

12) Adams, W. Y., *Nubia: Corridor to Africa.* London: Allen Lane, 1977.

13) Emery, W. B., "Egypt Exploration Society: Preliminary Report on the Excavations at Buhen, 1962", *Kush* 11, 1963, p.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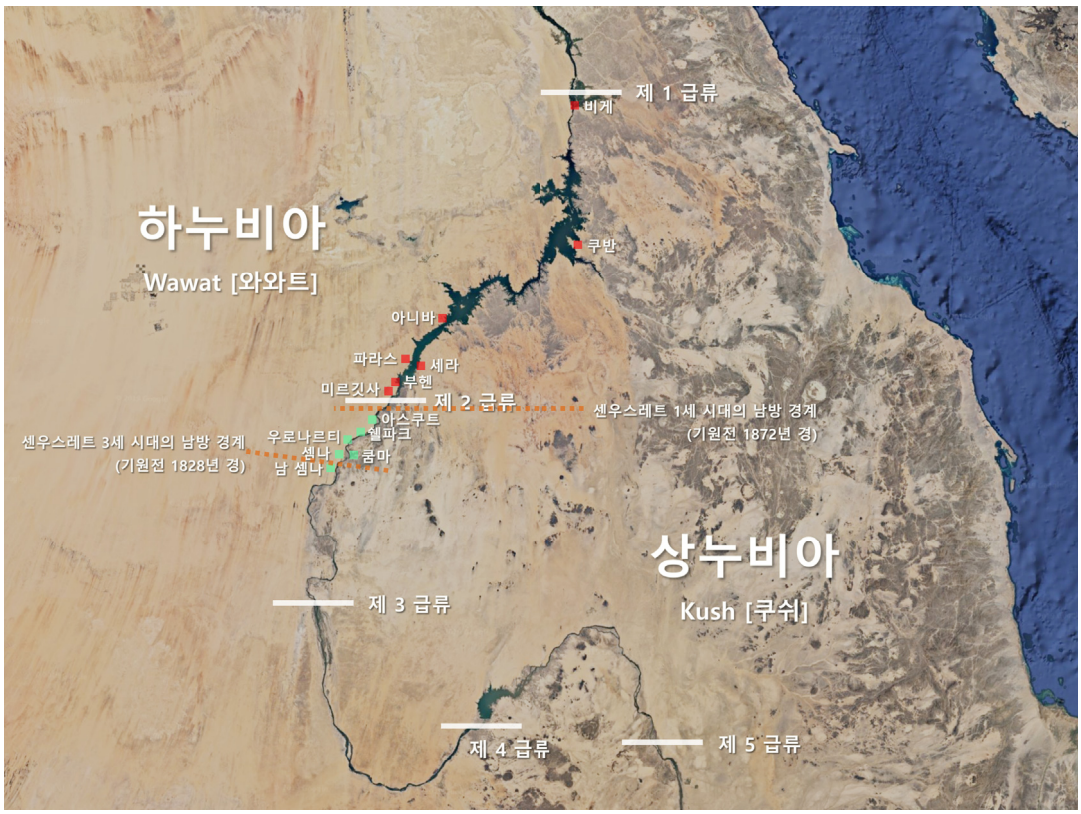
14) Morkot, R. G., "Egypt and Nubia", S. Alcock (ed.), *Empires: perspectives from archaeology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 237.

15) *Ibid.*, p. 230.

16) Török L., *Between two worlds : the frontier region between ancient Nubia and Egypt, 3700 BC-500 AD.* Leiden: Brill, 2008, pp. 124~125.

Ⅳ. 중왕국 이집트의 요새 체계 구축과 '이집트의 지리적 범주'에 대한 인식 변화

이집트가 재통일되어 중왕국이 형성되자 파라오들은 하누비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들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제 12왕조(기원전 1985~1773년 경) 초기의 파라오들은 고왕국 시대에 활용되었던 제 2급류 지대까지의 요새 체계를 회복-강화시켰다.[17] 이 과정에서 부헨과 같이 고왕국 시대부터 활용되던 곳들이 복원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복원된 요새들을 토대로 제 2급류 이남 지역에 대한 군사 원정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이 원정은 당시까지 이집트가 단 한번도 진출하지 않았던 바튼 엘-하가르(Batn el-Hagar)의 셈나(Semna) 지역에까지 이르게 된다. 센우스레트 3세(Senusret Ⅲ, 재위 기원전 1870~1831년 경)는 이 누비아 재정복 사업을 시작한 파라오인데, 이 시기에 만들어진 요새 체계는 중왕국이 와해되는 13왕조 말까지 계속해서 사용된다. 중왕국 시대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요새들의 연쇄'는 훗날 신왕국 시대의 누비아에 대한 문화화 정책의 초석이 되었다. 이 시기의 누비아 요새들에 대한 정보는 고고학 자료를 통



〈그림 2〉 연쇄를 이루고 있는 이집트의 누비아 요새(중왕국 시대)

17) Kemp, B., Ancient *Egypt: Anatomy of a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1991, pp. 231~136.

해서 뿐만이 아니라,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노마스티콘 파피루스(Onomastkicon Paphyrus)라고 이름 붙어진 기록에 따르면 14개에 이르는 요새들이 확인된다. 이들 가운데 고고학적으로도 그 실체가 파악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제 1급류에서 제2급류까지 : 미르깃사(Margissa), 부헨(Buhen), 파라스(Farasa), 세라(Serra), 아니바(Aniba), 쿠반(Kubban), 비게(Bigeh)
제 2급류 이남 : 남 셈나(Semna South), 셈나(Semna), 쿰마(Kumma), 우로나르티(Uronarti), 쉘파크(Shelfak), 아스쿠트(Askut)[18]

연쇄적으로 지어진 요새들은 누비아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연 자원에 대한 착취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 더불어 누비아인들이 남쪽에서부터 이집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보다 남쪽의 케르마(Kerma)와 아프리카 중부로 부터 들여오는 이국적 산물들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는 기능도 하였다.[19] 뿐만 아니라, 켐프에 따르면, 이 요새 체계는 보다 남쪽으로 군사 원정이 이루어질 때, 병참선 및 전진기지로 활용되기도 했다.[20]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이집트의 누비아 진출은 문헌 자료를 통해서 증명된다. 센우스레트(Senusret) 3세가 그의 치세 8년에 셈나에 세웠던 '국경 비석(Boudary Stelae)'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상-하 이집트 왕, 카카우라(Kha-kau-ra)[21] 페하(영원한 생명)의 치세 8년에 남쪽 경계가 확립되었다. 이는 어떠한 누비아인들도 수로와 육로 어느 쪽으로건 이곳을 통과하여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다만 이켄(미르깃사)에서의 통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조공을 바치고자 하는 누비아인들은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들도 배편으로 헤흐(셈나)를 통과하는 것은 영원히 허락되지 않으나, 그 이외에는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을 것이다."(Berlin14753)

같은 파라오가 조금 더 후대인 치세 16년에 세운 또 다른 비석에서는 새롭게 확정된 남쪽 국경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갈 것을 후손들에게 명령한다.[22]

---

18) Jaritz, H., "The Investigation of the Ancient Wall Extending from Aswan to Philae", *MDAIK* 49, 1993. pp. 107~132.

19) Adams, W. Y., *op. cit.*, 1984; Bourriau, J., "Relations between Egypt and Kerma during the Middle and New Kingdoms." W.V. Davies (ed.), *Egypt and Africa: Nubia from prehistory to Islam.* London: British Museum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1991, pp. 129~144; Trigger,B., *Nubia Under the Pharaohs,* London: Thames and Hudson, 1976; Smither, P., "The Semnah Dispatche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31, 1945, pp. 3~10; Smith, S. T., *Askut in Nubia: The Economics and Ideologyof Egyptian Imperialism in the Second Millennium B.C.*,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5, p. 45.

20) Kemp, B., "Large Middle Kingdom Granary Buildings and the Archaeology of Administration",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und Altertumskunde* 113, 1986, p. 128.

21) '라의 생명력의 현현'이라는 뜻으로 센우스레트 3세의 즉위명

"치세 16년, 페레트의 3번째 달, 왕께서 그의 남쪽 국경을 헤흐(셈나)에 세우셨다.
'나는 내가 계승 받은 것들보다도 (이집트 땅을) 더 넓혔다. 나의 후손들은 누구라도 내가 세운 이 경계를 유지하라. 진정한 아들이라면 그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경계를 져버리거나, 이를 위해서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나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다. 지금 내가 만든 이 경계에 나의 석상을 세우니, 그것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싸워나가라. 나는 나의 아버지들보다 보다 남쪽으로 나의 경계를 확장시켰다.'"(Berlin1157)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기 실질적으로 시작된 이집트의 하누비아 통치와 더불어 이집트의 남쪽 경계가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확장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즉 엘레판티네(Elephatine) 섬 인근을 남쪽 경계로 여기던 전통적인 지리적 인식론을 센우스레트 3세는 새롭게 재정립한 뒤,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이집트의 지리적 범주에 관한 새로운 규범과 당위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적 재생산을 일종의 당위로 갖고 있는 이집트의 문화적 전통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변화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집트의 남쪽 경계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남쪽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비아 지역의 이집트화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실제로 이 시기의 누비아에서 발견되는 이집트 스타일의 유물은 제한적이다.[23] 더불어 이 시기 누비아에 주둔한 이집트 병력은 순환 근무의 형태로 누비아에서 복무를 했다. 즉 일정 기간 누비아에서 근무한 병력은 다시 이집트 본토로 돌아갔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흐름은 곧 바뀌어서 13왕조 시대가 되면 점차적으로 누비아에서 영구 거주하는 이집트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예컨대, 부헨 지역에 세워진 이집트 양식의 비석의 숫자가 이 시기 동안 급격하게 늘어난다.[24] 이것은 이집트인이 분명한 비석의 소유자가 부헨에서 살다가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미르깃사의 매장 유적에서도 13왕조 시대 동안 나타난다.[25] 이는 매장 만큼은 반드시 이집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이집트인의 습성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인식 속에서 부헨을 포함한 하누비아 지역이 이미 이집트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면 쉽게 이해가 가능해진다. 센우세르트 3세에 의해서 재정립된 이집트의 인식론적 경계가 실천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22) Smith, S. T., *op. cit.*, 1991, p. 126.
23) Smith, S. T., "State and Empire in the Middle and New Kingdoms" A. B. Knapp (ed.), *Anthropology and Egyptolog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p. 67.
24) Smith, S. T., *op. cit.*, 1995, pp. 51~80.
25) Vercoutter, J., *Mirgissa I.* Paris: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et techniques, 1970.

Ⅴ. 제 2중간기의 경험

중왕국의 13왕조가 와해되고 이집트가 다시 중간기에 접어들자 이집트의 누비아에 대한 영향력은 다시금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이집트 북부, 즉 하이집트의 델타 지역에는 서아시아 계통의 인구집단이 유입되어 독립된 왕조를 세운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15, 16왕조(기원전 1650~1550년 경)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힉소스'라고 불리는 세력이다. 동시대에 이집트 남부 상이집트에서는 토착 왕조가 계속해서 패권을 잡고 있었다. 이것이 17왕조다. 양 세력 간에는 지속적인 마찰과 충돌이 있었다.

제 2중간기 시대에 누비아에서 이집트 세력이 철수하자 케르마(Kerma)를 중심으로 하는 누비아 토착 세력이 다시금 누비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는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다. 이집트 측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의 요새들이 누비아 인들에게 함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6] 엘-캅(El-Kab)에 있는 소베크호테프(Sobekhotep)의 무덤 기록에는 그가 살던 마을에 누비아 군대가 침공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27] 당시의 세력 교체 과정이 이집트 주둔 병력이 철수하기 이전에 군사적 충돌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집트 군 철수 이후에 누비아 군이 무혈입성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집트 요새들이 있던 하누비아 지역에서 어느 시점 이후부터 케르마의 영향력이 극도로 커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집트 17왕조와 동시기에 미르깃사와 부헨의 무덤들에서는 케르마 스타일의 물질문화가 확인되고,[28] 이집트 문자 기록도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29]

케르마에 의하여 누비아가 재탈환 되자, 나일강 유역에서는 북쪽에서부터 델타 지역의 힉소스 세력, 테베 지역의 이집트 토착 세력, 그리고 케르마를 중심으로 하는 누비아 원주민 세력이 각각의 왕국을 세운 상태가 나타나다. 그 결과 이집트는 적대적인 두 세력 가운데 끼여 있는, 지정학적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30] 제 17왕조의 파라오 카모세(Kamose)의 첫번째 비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나는 아시아인들과 누비아인들 사이에 끼여있는 상태다. 그들은 이집트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이 땅을 나와 나눠 가지고 있다."[31]

이 내용은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을 카모세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전통적으로 이집트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나일강 델타 지역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이집트 외부로 인식되었던

---

26) Emery, W. B., Smith, H. S. and Millard, A., *The Fortress of Buhen: The Archaeological Report,*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1979, p. 167.
27) Davies,W. V., "Kush in Egypt: A new historical inscription", *Sudan & Nubia* 7, 2003, p. 53.
28) Vercoutter, J., *op. cit.*, 1970; Randall-Maciver, D. and Woolley, C. L., *Buhen (2 vols),* Pennsylvania: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1911.
29) Adams, W. Y., *op. cit.*, 1984, p. 54.
30) Trigger,B., *Nubia Under the Pharaohs,* London: Thames and Hudson, 1976, p. 103.
31) Redford, D. B., "Textual Sources for the HyksosPeriod", E. D. Oren(ed), *The Hyksos: New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s,*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7, p. 32.

케르마가 차지하고 있던 누비아 지역 역시도 이집트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즉 하누비아 지역은 '재정복 되어야 할 외국'이 아니라, '회복되어야할 이집트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중왕국 시대의 센우스레트 3세의 선언과 연속선 상에 있는 지리적 인식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이후 신왕국에서 시도하는 누비아를 이집트에 완전 편입시키는 정책에 대한 당위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카모세는 본격적으로 힉소스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델타 지역 탈환에 나서기 이전, 먼저 누비아를 공격한다. 힉소스 보다는 전력이 약한 누비아를 공략함으로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힉소스와의 전쟁에서 배후지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누비아 탈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신왕국 이집트의 행정 권력에 의해서 누비아가 관리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었는데, 이를 동 아르민나(Arminna)에 새겨진 카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32]

Ⅵ. 신왕국의 누비아 편입 과정과 누비아 신전 도시들

카모세의 다음 파라오인 아흐모세(Ahmose, 재위 기원전 1550~1525년 경)는 힉소스 세력을 몰아내고 하이집트 탈환에 성공했다. 그 이후 그는 다시 한번 누비아 정벌에 나선다. 이 과정은 엘-캅(el-Kab)에 있는 이바나(Ibana)의 아들 아흐모세(Ahmose)[33]의 무덤에 기록된 그의 자전적 기록에서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 "아흐모세 폐하께서는 아시아의 유목민들(힉소스)을 물리치신 후, 누비아 궁병들을 섬멸하시기 위하여 남쪽에 있는 켄트-헨-네페르(khent-hen-nefer)로 항해를 하셨다. 폐하께서는 그들을 살육하셨다." (Urk IV 5.4-6).

괴디케의 경우에는 이때에 아흐모세가 남진한 켄트-헨-네페르가 당시까지 최남단 요새가 있던 지역보다 더 남쪽에 있는 장소일일 것으로 추정한다.[34] 그의 견해가 옳다면, 중왕국 시대의 이집트 요새들은 제 2급류 인근의 셈나와 남 셈나까지만 설치 되어 있었던 만큼, 켄트-헨-네페르는 그 이남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제 3급류 바로 북쪽에 있는 게벨 카즈바르(Gebel Kajbar)의 한 암각화에서 아흐모세의 이름이 확인되는 만큼, 이 곳이 그가 진출했던 최남단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35] 아흐모세는 사이(Sai) 섬에도 최초로 요새를 건

32) Simpson, W. K.and Millet, N. B., *Heka-neferand the dynastic material from Toshka and Arminna: Based on field work, notesand plans by the author and Nicholas B. Millet,* New Haven: Peabody Museum of Natural History of Yale University, 1963. p. 34.
33) 파라오 아흐모세와는 동명이인.
34) Goedicke, H., "Location of Hnt-hn-nfr", *Kush* 13, 1965, p. 111.
35) Edwards, D. N., "Drawings on Rocks, the Most Enduring Monuments of Middle Nubia", *Sudan & Nubia* 10, 2006, p. 58.

설한 것으로 여겨진다.[36] 이곳에서 아흐모세의 석상 조각[37]과 파라오 본인 및 그의 왕비였던 아흐모세-네페르타리를 언급하는 신전 부조 일부도 확인 되었다.[38]

아흐모세의 후예들은 지속적으로 남방으로 원정을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이집트의 남쪽 경계는 기존의 경계에서 남쪽으로 500킬로미터 가량 더 남쪽으로 제 4급류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흐모세의 바로 다음 파라오인 아멘호테프 1세의 누비아 원정에 대한 내용도 이바나의 아들 아흐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때에 나는 정의로운 조세르카라 폐하를 남방으로 모시고 갔다. 그는 쿠쉬까지 항해하여 이집트의 영토를 늘리셨다. 폐하께서는 군대를 이끌고 누비아 궁병들을 섬멸하여 그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만드셨다." (Urk IV 6.16-7.6).

아멘호테프 1세는 그의 치세 8년에 카시르 이브림(Khasir Ibrim)에 비석을 세웠다.[39]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즉 아흐모세를 뒤 이어서 사이 섬에 도시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나갔다.[40] 하지만 그때에도 제 3 폭포 이남에서 케르마는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파라오인 투트모스 1세(Thutmose I, 재위 1504~1492)는 바튼 엘-하가르를 넘어서 제 3 급류 바로 직전에 톰보스(Tombos)에 요새를 건설한다. 이것은 케르마를 직접 타격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41] 이후 투트모스 1세는 실제로 케르마 공략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서 지난 수백년 동안 누비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케르마 세력은 와해되어 버린다.[42] 이것은 이집트가 누비아에 대한 직접 통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투트모스 1세는 이런 상황에 발맞춰 쿠반(Kuban), 서 셈나(Semna West), 사이(Sai) 등지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같은 시기 '하누비아 태수'라는 직위가 이집트 관료 체계 내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하누비아는 이집트 본토의 다른 주들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통치되기 시작한다.[43]

---

36) Minault-Gout, A., "Les installations du début du Nouvel Empire à Sai: un état de la question", *Cahiers de Recherches de l'Institut de Papyrologie et d'Égyptologie de Lille* 26, 2007, pp. 275~293.

37) Welsby-Anderson, D. A. and J. R. Anderson (eds.), Sudan Ancient Treasures. An Exhibition of Recent Discoveries from the Sudan National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04, fig. 79.

38) Geus, F., "Sai", D. A. Welsby and J. R. Anderson (eds.), *Sudan. Ancient Treasures. An Exhibition of recent discoveries from the Sudan National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04, fig. 88; Vercoutter, J., "La XVIIIe dynastie à Sai et en Haute- Nubie", *CRAIBL* 1, 1972. pp. 9~38; Azim, M., "Quatre campagnes de fouilles sur la Forteresse de Saï, 1970~1973. 1ère partie: l'installation pharaonique", *Cahiers de Recherches de l'Institut de Papyrologie et d'Égyptologie de Lille* 3, 1975, pp. 9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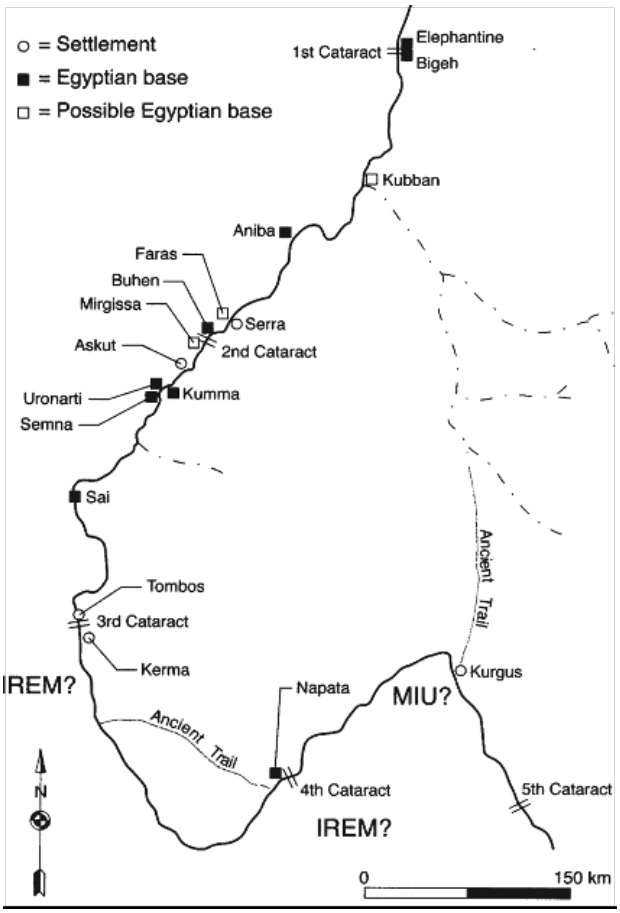
39) Bryan, B. M., "The 18th Dynasty before the Amarna Period", I. Shaw (ed.),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24.

40) Vandersleyen, C., *Les guerres d'Amosis fondateur de la XVIIIe dynastie,* Bruxelles: Fondation égyptologique reine Elisabeth, 1971, p. 71.

41) Säve-Söderbergh, T., *Ägypten und Nubi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altägyptischer Aussenpolitik.* Lund: Håkan Ohlssons Boktryckeri, 1941, p. 146.

42) Morris, E. F., *The architecture of imperialism: military bases and the evolution of foreign policy in Egypt's New Kingdom,* Leiden: Brill, 2005, p. 73; Török L., *op. cit.*, 2008, p. 161.

43) Spalinger, A. J., "Covetous Eyes South: The Background to Egypt's Domination of Nubia by the Reign of



〈그림 3〉 제 18왕조 중반의 누비아

(출처 : Morris, E. F., *The architecture of imperialism: military bases and the evolution of foreign policy in Egypt's New Kingdom,* Leiden: Brill, 2005, p. 200)

투트모스 1세 사후 상누비아 지역에서 구 케르마 지배계층이 주도하는 반란이 일어났으나, 이 반란은 즉각적으로 투트모스 2세에 의하여 진압되었다.[44] 이후 누비아지배계층의 자제들은 이집트로 압송되어 이집트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누비아 식민화 작업의 일환이었다.[45] 투트모스 2세는 서 셈나와 동 셈나

Thutmose III", E. H. Cline and D. O'Connor (eds.), *Thutmose III: A New Biograph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6, p. 351.

44) Török, L., *op. cit.*, 2008, p. 162; Morkot, R. G., "Studies in New Kingdom Nubia 1: Politics, Economics and Ideology: Egyptian Imperialism in Nubia", *Wepawet* 3, 1987, p. 32; von Beckerath. J., *Chronologie des pharaonischen Ägypten. Die Zeitbestimmung der ägyptischen Geschichte von der Vorzeit bis 332 v. Chr,*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1997, p. 121.

45) Säve-Söderbergh, T., *op. cit.*, 1941, pp. 150~152.

등지에서 종교 시설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집트의 누비아 편입이 군사적인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 양쪽 모두의 목적을 갖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임을 보여준다. 제 4급류 인근의 나파타(Napata)에서 그의 이름이 쓰여진 비문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아 이미 이 시기 이 지역에까지 이집트 군사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46]

다음 파라오인 하트셉수트(Hatshepsut, 재위 기원전 1473~1458년 경)와 투트모스 3세(Thutmose Ⅲ, 재위 기원전 1479~1425년 경)의 공동 통치기에도 누비아 지역에서 수차례의 군사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케르마가 와해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누비아의 잔당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시대의 첫번째 군사원정에 대한 기록은 세헬 섬(Sehel Island)에서 확인된다.[47] 탕구르에서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치세 12년에도 상누비아로의 원정이 있었다.[48] 이어서 치세 20년에는 다시 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은 톰보스 비석 뿐만이 아니라, 하트셉수트의 데이르 엘-바흐리 장례신전에도 기록되어 있다.[49] 하트셉수트-투토모스 3세 공동 통치기에 이집트는 이미 동골라 유역에 대한 패권을 성공적으로 장악한 것으로 여겨지나,[50] 이후에도 누비아 원정에 관한 기록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대체로 새 왕이 즉위한 직후, 누비아에서 반란이 일어나 군사원정이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즉위한 파라오는 왕권에 대한 정당성과 자신의 활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례 행위로서의 군사원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트셉수트 사후, 투트모스 3세의 치세 35년에는 파라오가 직접 참여한 원정이 있었다. 이때부터는 원정의 성격이 조금 변화한다. 투트모스 3세의 남쪽 경계 비석으로 불리기도 하는 쿠르구스(Kurgus) 비석에 따르면, 이 원정의 과정 중에 투트모스 3세는 코뿔소를 사냥했다.[51] 이는 이때의 원정이 실리적인 목적 보다는 의례적 목적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하게 만든다.

신왕국 시대 전반기 누비아에서 지속적인 군사활동이 이루어진 결과, 하트셉수트-투트모스 3세 시대 이후에는 누비아 지역의 안전보장은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었다. 시기가 되면 중왕국 시대에 건설되었던 제 2급류 지역의 요새들은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버려지기도 한다. 이 요새들 가운데 셈나는 하누비아 지역에서 중심지로 성장하고, 우로나르티와 쿰마는 취락으로 변모한다.[52] 또한 부헨과 아니바에서는 외벽을 두른 도시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때의 외벽은 방어

46) Török, L.,*op. cit.*, 2008, p. 162.
47) Gasse, A. and Rondot, V., "The Egyptian Conquest and Administration of Nubia during the New Kingdom: the Testimonyof the Sehel Rock-Inscriptions", *Sudan& Nubia* 7, 2003. p. 41.
48) Reineke, W. F., "Ein Nubienfeldzug unter Königin Hatshepsut", F. Hintze and E. Endesfelder(eds.), *Ägypten und Kusch,* Berlin: Akademie-Verlag, 1977, p. 370.
49) Redford, D. B., *History and Chronology of the Eighteenth Dynasty of Egypt. Near and Middle Eas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67, pp. 58~59.
50) *Ibid.,* pp. 57~59; Säve-Söderbergh, T., *op. cit.*, 1941, p. 155.
51) Säve-Söderbergh, T. and Troy, L., *New Kingdom Pharaonic Sites,* Uppsala: The Scandinavian Joint Expedition to Sudanese Nubia Publications, 1991, p. 3; Davies, W. V., "Kurgus 2000: The Egyptian Inscriptions", *Sudan & Nubia* 5, 2001, p. 52.
52) Säve-Söderbergh, T., *op. cit.*, 1941, p. 193.

용 용도는 아니었고, 도시 외부와 내부를 구분짓기 위한 용도였던 것을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상누비아 지역에서도 이집트의 식민화 노력이 확인된다. 예컨대, 사이에서 애초에는 벽돌로 지어진 신전들이 이 시기에 석재 신전으로 교체된다. 이는 요새에 주둔하던 병력 등 일시적으로 요새에 머물던 인원들을 위한 간이 종교 시설이 영구히 사용될 목적을 지닌 시설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아르고(Argo) 섬에 있는 타보(Tabo)에서는 투트모스 시대에 지어진 신전 일부가 타하르크(Taharq, 재위 기원전 690~664년 경)의 신전에서 발견되었고, 신왕국 시대의 주거지 유적도 이 25왕조 시대 신전의 남서면에서 확인되었다.[53] 누비아에서의 이집트 통치가 확고해짐에 따라, 아멘호테프 3세 시대(기원전 1390~1352년 경)가 되면 누비아에서는 과거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림 4〉 솔렙(Soleb)의 신전 구조물(출처 : wikimedia co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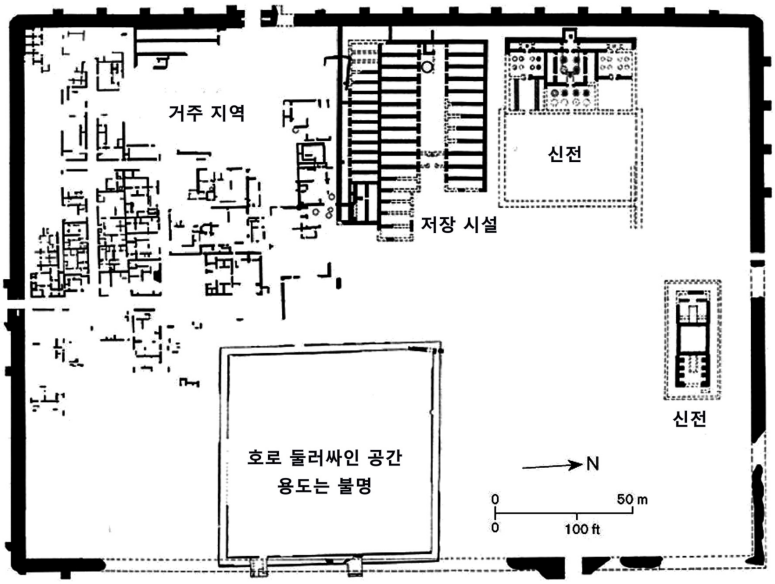
아멘호테프 3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의례를 목적으로 갖는 신전을 제 2급류와 제 3급류 사이에 위치한 솔렙(Soleb)에 지었다. 이 솔렙 지역은 최초로 만들어진 신전 도시가 된다.[54] 솔렙과 더불어 세데잉가(Sedeinga)

53) Jacquet-Gordon, H., Bonnet, C. and Jacquet, J., "Pnubs and the Temple of Tabo on ArgoIsland",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5, 1969, p. 110.
54) Bryan, B. M., *op. cit.*, 2000, p. 260; Kemp, B., *op. cit.*, 1972, p. 651.

〈그림 5〉 아멘호테프 3세 시대에 지어진 룩소르 신전의 열주실(출처 : 곽민수)

에는 아멘호테프 3세의 왕비였던 티예(Tiye)를 위한 신전이 지어지기도 했다.[55] 이 도시들은 누비화 식민화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 과정에는 신전 등의 기념물을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작업도 동반되었다.[56] 이와 같은 시도들은 누비아의 이집트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던 이집트의 행정력이 이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렙의 신전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서 오늘날에도 신전의 구조 가운데 일부를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에 솔렙에 지어진 신전들의 신전 기둥은 파피루스 다발 형태로, 같은 시기 이집트 본토에서 지어진 다른 신전들의 기둥 모양과 같다. 이 시기에 누비아에 지어진 이집트 신전들은 규모는 이집트 본토의 신전들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부분 신왕국 이집트의 주신이었던 아멘이나 파라오들에게 봉헌된 신전이다. 실제로 아멘호테프 3세의 경우에는 그의 치세 동안 이집트 본토에서 그랬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누비아 지역에서도 신격화 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다.[57] 베리 켐프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확장-개조된 요새 도시들을 '신전 도시'라고 칭했는데, 과거에는 요새로 사용되었던 취락 내에 석재로 만들어진 이집트식 신전들이 지어졌기 때문이다.[58]

55) Porter, B. and Moss, R., *Topographical Bibliography of Ancient Egyptian Hieroglyphic Texts, Reliefs, and Paintings VII: Nubia, The Deserts and Outside Egypt,* Oxford: Griffith Institute, 1952, p. 66.
56) Kemp, B., *op. cit.*, 1972, p. 651.
57) Bryan, B. M., *op. cit.*, 2000, p.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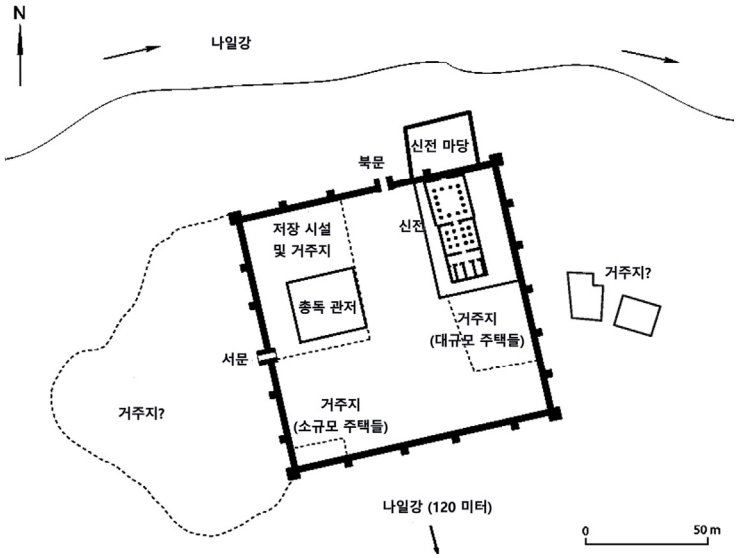
〈그림 6〉 세세비(Sesebi) 유적 도면

신전 건설 작업은 훗날 아케나텐(Akhenaten)으로 이름을 바꾸는 아멘호테프 4세와 투탕카멘(Tutankhamen) 시대 동안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아멘호테프 4세는 치세 전반기 동안에 세세비(Sesebi)에 테베 삼존(Theban Triad)[59]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다.[60] 이 신전에서는 후대에 신격화된 람세스 2세를 위한 의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61] 세세비는 완전하게 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는 도시인데, 신전의 규모가 취락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하다.[62] 이와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에 세세비는 도시 자체가 신전을 위해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도시의 외벽 역시도 군사적인 기능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대신 주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을 막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63] 또한 이집트 본토의 신전 외벽이 세속적 세계와 신전 내부의 신성한 공간을 상징적으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이 세세비의 외벽 역시도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 내부에는 거대한 저장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이 역시도 신전 소유로 신전의 운영을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 유적 내에서는 숫돌도 발견되었는데, 스펜스는 이를 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설명한다.[64] 투탕카멘 치세 때에는 파라스(Faras)에

58) Kemp, B., *op. cit.*, 1972, p. 653.
59) 아멘(Amen) 신을 비롯하여 그의 부인 무트(Mut) 여신과 아들이 콘수(Khonsu) 신
60) Fairman, H. W., "Preliminary Report on the Excavations at Sesebi (Sudla) and Amārah West, Anglo-Egyptian Sudan, 1937-38",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4, 1938, pp. 151~156; Morkot, R. G., 1988. "The Excavations at Sesebi (Sudla) 1936-1938", *Beiträge zur Sudanforschung* 3, 1988, pp. 159~164.
61) Fairman, H. W., *op. cit.*, 1938, p. 154.
62) Spencer, N., "Cemeteries and a late Ramesside Suburb at Amara West", *Sudan & Nubia* 13, 2009, p. 43.
63) Spence, K., "Royal Walling Projects in the Second Millenium BC: Beyond an Interpretation of Defence",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14/2, 2004, p. 265; pp. 269~270.

도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곳은 이후 하누비아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65] 신전 도시를 건설 사업은 제 19왕조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나 제 20왕조 람세스 3세 시대 이후에는 누비아 지역에 대한 이집트의 관심 및 관리의 정도나 낮아지는데, 이는 이집트 내부의 혼란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66]

세티 1세는 아크샤(Aksha)에 신전 도시를 세웠다.[67] 하누비아의 파라스에서 15킬로미터 남쪽으로 떨어진 지역이다. 솔렙에서 북쪽으로 50킬로미터 떨어진 서 아마라도 재건하여 세티 1세는 이곳에 신전 도시를 만들었는다.[68] 이곳에서는 람세스 2세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69] 아카샤와 투탕카멘 시절에 만들어진 파라스가 갖고 있었던 와와트, 즉 하누비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건설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카샤와 아마라에서는 아멘 뿐만이 아니라 살아 있는 파라오를 위한 의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와와트의 총독이 머무는 행정 중심지가 파라스에서 아카샤로 바뀐 이유는 도시의 위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아샤카는 누비아의 주요한 금광들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70] 이 시기 이집트의 금 사용량이 증대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하인의 추정은 설득력이 있다.



〈그림 7〉 서 아마라(Amara West) 유적

64) Spencer, N., "Cemeteries and a late Ramesside Suburb at Amara West", *Sudan & Nubia* 13, 2009, p. 48.
65) Säve-Söderbergh, T., "Preliminary Report of the Scandinavian Joint Expeditio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between Faras and Gamai, November 1963-March 1964", *Kush* 15, 1967~1968, pp. 211~251; Karkowski, J., *The Pharaonic Inscriptions,* Warsaw: Editions scientifiques de Pologne, 1981, p. 71.
66) Spencer, P., *Amara West I: The Archaeological Report,*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1997.
67) Porter, B. and Moss, R., *op. cit.*, 1952, pp. 127; Säve-Söderbergh, T., *op. cit.*, 1941, p. 196.
68) Spencer, P., *op. cit.* 1997, p. 168; Fairman, H. W., *op. cit*, 1938, p. 11.
69) Spencer, P., *op. cit.* 1997, p. 1.
70) Hein, I., *Die ramessidische Bautätigkeit in Nubien.*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1, p. 39.

같은 시기에 서 아마라 역시도 신전이 세워지고, 도시의 규모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71] 또한 도시 내에서 발굴된 토기들은 대체로 다양한 형식의 이집트 토기이다. 이들 가운데 약 10% 가량의 누비아식 조리용기들이 포함되어 있다.[72] 비슷한 현상은 세세비에서도 나타난다. 세세비의 경우에는 발견되는 토기들 가운데 20-30% 가량의 누비아 스타일의 조리용 용기들이다.[73] 서 아마라에서는 누비아와 이집트 양식의 물품들이 혼재 되어 부장품으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 되었다. 이곳에서 이집트인과 누비아인이 섞여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아멘호테프 3세 시절에는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을 누비아 지역에 정착시켰다는 기록들도 남아 있다.[74] 또한 람세스 2세의 치세 44년 경 지역 태수였던 세타우가 체메히라는 이름의 리비아인을 서쪽 사막에서 생포하여 와디 에스-세부아(Wadi es-Sebua)의 신전 건설 과정에 투입시켰다는 기록이 있다.[75] 그러나 외국인의 존재가 누비아 지역에서 확인되는 예가 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누비아 지역 원주민을 외지 출신들로 교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관, 서기, 장인, 신전 건축 전문가 같은 전문 인력들만 누비아로 이주하여 지역 원주민들 사이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76]

Ⅶ. 결어-누비아 식민화의 동기와 그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 그리고 '신전 도시'라는 개념

이상으로 신왕국 이집트에 의한 누비아의 식민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전 도시'라는 고고학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주제는 다음의 두 가지 논점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다.

1. 이집트에 의한 누비아 식민화의 동인과 배경

이집트의 누비아 편입에는 효과적인 누비아 착취를 위한 경제적인 목적과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다른 층위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데올로기적 구조의 변동, 즉 '마아트'로 대변되는 우주적 질서에 관한 내용의 변화로도 설명할 수 있다.

---

71) Spencer, P., *op. cit.* 1997, p. 179.
72) Spencer, N., *op. cit.* 2009, p. 55.
73) Spence, K., Rose, P., Bunbury, J., Claphan, A., and Collet, P., "Fieldwork at Sesebi, 2009", *Sudan and Nubia: the Sudan Archaeological Research Society Bulletin* 13, 2010, pp. 38~46.
74) Edzard, D. O., Hachmann, R.and Maiberger, P., *Kamidel-Loz-Kumidi. Schriftdokumente aus Kamid el-Loz,* Bonn: Habel, 1970, p. 50.
75) Török, L., *op. cit.*, 2008, p. 189.
76) Kemp, B., "Imperialism and empire in New Kingdom Egypt (c.1575-1087 BC)", Garnsey P. and Whittaker C.(eds), *Imperialism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 39.

앞서서도 설명했던 것과 같이 센우세르트 3세의 비문들은 '인식론적 경계의 확장'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지난 수백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주적 질서'를 업데이트 하는 상당히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생겨난 것은 실제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리화 과정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누비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를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역시 동시에 확보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유도한 '동인' 이외에도, 이를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배경은 신왕국 이집트의 누비아에 대한 태도를 같은 시기 레반트 지역에 대한 태도와 비교 및 대조함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신왕국 이집트는 카르케미시(Carchemish)와 카데쉬(Kadesh) 등의 시리아 북부 지역을 비롯해서 유프라테스 상류지역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이 지역을 이집트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나일강의 유무'라는 자연 경관적인 차이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 누비아 지역은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경관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나일강을 통해서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는데 반하여, 레반트 지역은 육로로만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비아 지역은 약간의 인식론적 조정만으로도 이집트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레반트는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양 지역의 정치적 경관 차이도 이집트의 양 지역에 대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누비아의 주된 정치 세력이었던 케르마는 오래도록 이집트의 골칫거리이기는 했지만, 이집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케르마는 투트모스 1세 시대에 있었던 적극적인 공격으로도 와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대상이었다. 반면, 레반트 지역에는 이집트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중대한 위협이 되기도 했던 거대한 정치체들이 존재했고, 이 세력들 역시 지속적으로 레반트로 진출을 시도했다. 요컨대, 18왕조 시대에는 미탄니(Mitanni), 19왕조 시대에는 히타이트(Hittite)가 그 세력들이었다. 이집트는 레반트 지역에서 이 세력들과 충돌을 하거나, 직접적인 충돌은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정치 경관은 이집트가 레반트 지역을 이집트에 영토로 편입시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 것은 물론, 경계 확장에 관한 상상력조차 발휘할 수 없게끔 했을 것이다.

2, '신전 도시'라는 개념의 타당성

베리 켐프에 의해서 제안되고 현재까지 관련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신전 도시'라는 용어 및 개념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피이트의 경우에는 이 용어/개념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지고 있는 다양한 유적들에 대한 몰이해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77] 즉 일반적으로 신전 도시로 칭해지고 있는 누비아 지역의 특수한 유적들도 이집트 본토에 있는 일반적인 취락, 즉 신전이 취락의 중심에 위치하고 거주

77) Vieth, J., "Urbanismin Nubia and the New Kingdom Temple Towns", Budka, J. and Auenmüller, J.(eds.), *From Microcosm to Macrocosm, Individual households and cities inAncient Egypt and Nubia*, Leiden: Sildestone Press, 2018, pp. 227~238.

지가 그 주변에 위치하는 형태의 취락과 사실은 그 구조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전 도시'로 특수하게 칭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초창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집트의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취락으로 사용되어온 엘레판티네(Elephantine) 섬의 아부(Abu) 유적에서도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취락이 나타난다. 이 곳에서는 지역 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크눔(Khnum)의 신전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유적들이 혼재하는 양상이 보인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누비아의 '신전 도시'에서는 전체 취락에서의 신전이 갖는 상대적인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세세비 유적의 경우 신전의 규모가 전체 취락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또한 외벽 또한 외부 지역과 신전 및 신전에 인접한 주거지를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확보된 데이터의 불균형 때문에 생겨나는 착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서 아마라 유적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에 따르면 신전과 그 신전을 중심으로 외벽이 둘러싸인 공간 외부에도 주거지로 보이는 흔적들이 확인된다.[78] 기념물적 건축물의 특성상 신전과 그 주변이 먼저 고고학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고, 그보다 물리적 보존력이 나쁜 신전 외벽 밖의 일반 주거지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발굴 데이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신전 도시'라는 개념은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만 사용되거나, '누비아 편입을 목적으로 누비아 지역에 지어진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확장된 취락' 정도의 제한적 의미로 사용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다 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발굴 성과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dams, W. Y., "The First Colonial Empire: Egypt in Nubia, 3200-1200B.C.",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6, 1984.

Azim, M., "Quatre campagnes de fouilles sur la Forteresse de Saï, 1970~1973. 1ère partie: l'installation pharaonique", *Cahiers de Recherches de l'Institut de Papyrologie et d'Égyptologie de Lille* 3, 1975.

von Beckerath. J., *Chronologie des pharaonischen Ägypten. Die Zeitbestimmung der ägyptischen Geschichte von der Vorzeit bis 332 v. Chr,* Mainz: Verlag Philipp von Zabern, 1997.

Bourriau, J., "Relations between Egypt and Kerma during the Middle and New Kingdoms." W. V. Davies (ed.), *Egypt and Africa: Nubia from prehistory to Islam,* London: British Museum

78) Spencer, N., *op. cit.*, 2009; Spencer, P., *Amara West II: The Cemetery and Pottery Corpus,*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2; Spencer, P., *Amara West III: The Scenes and Texts of the Ramesside Temple,*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16.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1991.

Bryan, B. M., "The 18th Dynasty before the Amarna Period", I. Shaw (ed.),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Campagno, M., "Sobre Bienes de Prestigio, Orden y Caos: El Estado Egipcio y sus Periferias Duranteel Período Dinástico Temprano (ca. 3000-2700 a.C.)", Daneri Rodrigo and Campagno (eds.), *Contactos: Relacionesde Intercambio Entre Egipto y sus Periferias,* Buenos Aires: Universidad de Buenos Aires, 2004.

Davies, W. V., "Kurgus 2000: The Egyptian Inscriptions", *Sudan & Nubia* 5, 2001.

Edwards, D. N., "Drawings on Rocks, the Most Enduring Monuments of Middle Nubia", *Sudan & Nubia* 10, 2006.

Edzard, D. O., Hachmann, R.and Maiberger, P., *Kamidel-Loz-Kumidi. Schriftdokumente aus Kamid el-Loz,* Bonn: Habel, 1970.

Emery, W. B., "Egypt Exploration Society: Preliminary Report on the Excavations at Buhen, 1962", *Kush* 11, 1963.

Emery, W. B., Smith, H. S. and Millard, A., *The Fortress of Buhen: The Archaeological Report,*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1979.

Fairman, H. W., "Preliminary Report on the Excavations at Sesebi (Sudla) and Amārah West, Anglo-Egyptian Sudan, 1937~38",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4, 1938.

Gasse, A. and Rondot, V., "The Egyptian Conquest and Administration of Nubia during the New Kingdom: the Testimonyof the Sehel Rock-Inscriptions", *Sudan& Nubia* 7, 2003.

Geus, F., "Sai", D. A. Welsby and J. R. Anderson (eds.), *Sudan. Ancient Treasures. An Exhibition of recent discoveries from the Sudan National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04.

Goedicke, H., "Location of Hnt-hn-nfr", *Kush* 13, 1965.

Hein, I., *Die ramessidische Bautätigkeit in Nubien.*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1991.

Jacquet-Gordon, H., Bonnet, C. and Jacquet, J., "Pnubs and the Temple of Tabo on ArgoIsland",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5, 1969.

Jaritz, H., "The Investigation of the Ancient Wall Extending from Aswan to Philae", *MDAIK* 49, 1993.

Karkowski, J., *The Pharaonic Inscriptions,* Warsaw: Editions scientifiques de Pologne, 1981.

Kemp, B., "Fortified towns in Nubia", P. J. Ucko and R. Tringham(eds.), *Man, settlement and urbanism. Proceedings of a meeting of the Research Seminar in Archaeology and Related Subjects held at the Institute of Archaeology, London University.* Gloucester: Duckbacks,

1972.

Kemp, B., "Imperialism and empire in New Kingdom Egypt (c.1575-1087 BC)", P. Garnsey and C. Whittaker C.(eds), *Imperialism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Kemp, B., "Large Middle Kingdom Granary Buildings and the Archaeology of Administration", *Zeitschrift für Ägyptische Sprache und Altertumskunde* 113, 1986.

Kemp, B., Ancient *Egypt: Anatomy of a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1991.

Kwack, Min-Soo., *Changes in prestige goods and the rise of institutionalised social inequality in the Terminal Predynastic Egypt*. Unpublished University College London MA thesis, 2009.

Minault-Gout, A., "Les installations du début du Nouvel Empire à Sai: un état de la question", *Cahiers de Recherches de l'Institut de Papyrologie et d'Égyptologie de Lille* 26, 2007.

Morkot, R. G., "Studies in New Kingdom Nubia 1: Politics, Economics and Ideology: Egyptian Imperialism in Nubia", *Wepawet* 3, 1987.

Morkot, R. G., 1988. "The Excavations at Sesebi (Sudla) 1936~1938", *Beiträge zur Sudanforschung* 3, 1988.

Morkot, R. G., "Egypt and Nubia", S. Alcock (ed.), *Empires: perspectives from archaeology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Morris, E. F., *The architecture of imperialism: military bases and the evolution of foreign policy in Egypt's New Kingdom,* Leiden: Brill, 2005.

Porter, B. and Moss, R., *Topographical Bibliography of Ancient Egyptian Hieroglyphic Texts, Reliefs, and Paintings VII: Nubia, The Deserts and Outside Egypt,* Oxford: Griffith Institute, 1952.

Randall-Maciver, D. and Woolley, C. L., *Buhen (2 vols),* Pennsylvania: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1911.

Redford, D. B., *History and Chronology of the Eighteenth Dynasty of Egypt. Near and Middle Eas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67.

Redford, D. B., "Textual Sources for the Hyksos Period", E. D. Oren(ed), *The Hyksos: New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Perspectives,* Philadelphia: University Museum,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7.

Reineke, W. F., "Ein Nubienfeldzug unter Königin Hatshepsut", F. Hintze and E. Endesfelder(eds.), *Ägypten und Kusch,* Berlin: Akademie-Verlag, 1977.

Säve-Söderbergh, T., *Ägypten und Nubien. Ein Beitrag zur Geschichte altägyptischer Aussenpolitik*. Lund: Håkan Ohlssons Boktryckeri, 1941.

Säve-Söderbergh, T., "Preliminary Report of the Scandinavian Joint Expedition.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between Faras and Gamai, November 1963-March 1964", *Kush* 15, 1967~1968.

Säve-Söderbergh, T. and Troy, L., *New Kingdom Pharaonic Sites,* Uppsala: The Scandinavian Joint Expedition to Sudanese Nubia Publications, 1991.

Simpson, W. K. and Millet, N. B., *Heka-neferand the dynastic material from Toshka and Arminna: Based on field work, notesand plans by the author and Nicholas B. Millet,* New Haven: Peabody Museum of Natural History of Yale University, 1963.

Smith, S. T., "A Model for Egyptian Imperialism in Nubia", *GM* 122, 1991.

Smith, S. T., *Askut in Nubia: The Economics and Ideology of Egyptian Imperialism in the Second Millennium B.C.*,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1995.

Smith, S. T., "State and Empire in the Middle and New Kingdoms" A. B. Knapp (ed.), *Anthropology and Egyptology,*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Smith, S. T., "Potsand Politics: Ceramics from Askut and Egyptian Colonialism during the Middle through New Kingdoms" C. A. Redmount and C. A. Keller (eds.), *Egyptian Pottery: Proceedings of the 1990 Pottery Symposium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Regents of the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3.

Smither, P., "The Semnah Dispatches",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31, 1945.

Spalinger, A. J., "Covetous Eyes South: The Background to Egypt's Domination of Nubia by the Reign of Thutmose III", E. H. Cline and D. O'Connor (eds.), *Thutmose III: A New Biograph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6.

Spence, K., "Royal Walling Projects in the Second Millenium BC: Beyond an Interpretation of Defence",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14/2, 2004.

Spence, K., Rose, P., Bunbury, J., Claphan, A., and Collet, P., "Fieldwork at Sesebi, 2009", *Sudan and Nubia: the Sudan Archaeological Research Society Bulletin* 13, 2010.

Spencer, N., "Cemeteries and a late Ramesside Suburb at Amara West", *Sudan & Nubia* 13, 2009.

Spencer, P., *Amara West I: The Archaeological Report,*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1997.

Spencer, P., *Amara West II: The Cemetery and Pottery Corpus,*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02.

Spencer, P., *Amara West III: The Scenes and Texts of the Ramesside Temple,* London: The Egypt Exploration Society, 2016.

Török, L., *Between two worlds: the frontier region between ancient Nubia and Egypt, 3700 BC~500 AD.*, Leiden: Brill, 2008.

Trigger, B., *Nubia Under the Pharaohs,* London: Thames and Hudson, 1976.

Vandersleyen, C., *Les guerres d'Amosis fondateur de la XVIIIe dynastie,* Bruxelles: Fondation égyptologique reine Elisabeth, 1971.

Vercoutter, J., *Mirgissa I.* Paris: Direction générale des relations culturelles, scientifiqueset techniques, 1970.

Vercoutter, J., "La XVIIIe dynastie à Sai et en Haute-Nubie", *CRAIBL* 1, 1972.

Vieth, J., "Urbanismin Nubia and the New Kingdom Temple Towns", Budka, J. and Auenmüller, J.(eds.), *From Microcosm to Macrocosm. Individual households and cities inAncient Egypt and Nubia*, Leiden: Sildestone Press, 2018.

Welsby-Anderson, D. A. and Anderson, J. R.(eds.), Sudan Ancient Treasures. An Exhibition of Recent Discoveries from the Sudan National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Press, 2004.

Wengrow, D., *The archaeology of early Egypt: social transformations in North-East Africa, 10,000 to 2650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Williams, B. B, "The Lost Pharaohs of Nubia", *Archaeology* 33, 1980.

Williams, B. B, *The A-Group Royal Cemetery at Qustul: Cemetery L,* Chicago: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986.

Williams, B. B., *New Kingdom Remains from Cemeteries R, V, Sand W at Qustul and Cemetery K at Adindan*. Chicago: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2.

* 이 논문은 2020년 2월 21일에 투고되어,
2020년 4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4월 7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Colonisation of Nubia and the Temple Towns During the New Kingdom Period

Kwack, Min-Soo*

There were extensive interchanges between Egypt and Nubia from the Predynastic period. The two regions influenced each other and many cultural processes occurred due to this interaction. From the Egyptian viewpoint, Nubia was a region with sufficient luxury goods, and from very early times, the Egyptian ruling class desired to obtain these items which were used as prestige goods in Egypt. Although Egypt often seized the initiative in this relationship, Nubia was maintained as a relatively independent area and Egypt also did not try to directly control the region. During the New Kingdom period there was a significantly different situation. After Nubia was re-conquered through Egyptian military campaigns, Egyptian decision makers started to annex Nubia into Egypt. In this process, the Middle Kingdom fortresses were replaced by Egyptian temple towns. This very distinct historical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economic and ideological motivations. The annexation of Nubia into Egypt, the territory of Maat, both physically and ideologically seems to have been devised in order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ey Words] Egypt, Nubia, Temple Town, New Kingdom, Egyptology, Egyptian Archaeology, Maat

* Ph.D. Candidate, Durham University